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가정법원 없던 전북 사법 공백지 벗어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민 숙원 결실... 전북 사법체계 전환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있던 '사법 공백 지역'이라는 오랜 한계를 벗어나게 됐다.

지역 법조계와 도민사회가 수년간 요구해 온 숙원이 제도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전북 사법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다.

향후 군산·정읍·남원 지역에도 지원 설치가 가능해져 도내 전역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이혼, 상속, 친권·양육권 분쟁, 가정폭력, 소년보호 사건 등을 지방법원에서 함께 다루면서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보호 조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판결하는 기능을 넘어 조정·상당·후견 등 회복적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위기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와 상담이 강화되고, 분쟁을 조기에 완화하는 조정 시스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역 내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접근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과정에서는 지역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법조계의 공조가 힘을 발휘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성운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전북의 사법 인프라 공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설득에 나섰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탤다.

전북자치도는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가사·소년 사건 증가 추세와 서비스 불균형 실태를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법원 설치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법 영역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전문적이고 촘촘한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권리가 지역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성운 의원은 "출마 당시 약속했던 전북 사법 서비스 정상화를 현실로 만들게 돼 뜻깊다"며 "전북도민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사법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학수 회장은 "이번 법 통과는 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가정폭력과 청소년 비행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법조계도 새로 출범할 가정법원이 조기에 자리 잡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가정법원은 향후 대법원 규칙 제정과 조직·예산 배정 절차를 거쳐 개원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주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조사·상담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입법은 단순한 법원 신설을 넘어, 전북의 사법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민의 가정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사법 복지 확대'라는 새로운 변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6년간 5,714가구

가 총 49억원의 지원을 왔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먼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사업은 영구임대,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올해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19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전북 유치 본격화 주력

민주 이원택 의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건의...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 포함해달라"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제안... 전북 소재·실증 역량 결합 반도체산업 분업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가 날로 빛을 보면서 전북발전 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나후 전북 탈피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반도체 실증공장 전북 유치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의 전북 유치와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 반도체산업 관련한 지방시대위



원장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유치를 강력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

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

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가 날로 빛을 보면서 전북발전 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나후 전북 탈피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반도체 실증공장 전북 유치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의 전북 유치와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 반도체산업 관련한 지방시대위

원장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유치를 강력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

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가 날로 빛을 보면서 전북발전 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나후 전북 탈피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반도체 실증공장 전북 유치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의 전북 유치와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 반도체산업 관련한 지방시대위

원장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유치를 강력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

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가 날로 빛을 보면서 전북발전 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나후 전북 탈피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반도체 실증공장 전북 유치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의 전북 유치와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 반도체산업 관련한 지방시대위

원장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유치를 강력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

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 이미 반도체 케미컬 기업과 관련 산업이 집적된 현실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실증과 소재 측은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논의된 가운데 이 의원은 김경수 위원장에게 전북의 균형발전지수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본격화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을 배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수를 고려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5급에 있지만, 산업적 특성이 더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발로 뛰는 민생행보가 날로 빛을 보면서 전북발전 대 전환과 함께 새로운 시대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나후 전북 탈피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반도체 실증공장 전북 유치를 본격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결과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종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삼성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의 전북 유치와 남부권 반도체벨트에 전북을 포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북 반도체산업 관련한 지방시대위

원장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유치를 강력 피력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북은 반도체 케

미컬 분야에서 연간 약 6조원 규모의 공급망을 형성한 핵심 지역이다"며 "소재와 실증을 담당하는 전북이 포함돼야 수도권 양산 총청권 조립과 연계된 국가 반도체 지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전북의 분명한 역할이 있고 실증

공정 또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전북을 연계해 상상할 수 있는 산업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전북의 산업적 특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약 3조원 규모의 삼성-전북 공동 반도체 양산형 실증공장 및 조립·패키징 공장 전북 유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의 양산 총청권의 조립, 전북의 소재·실증 역량을 결합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전북은